

2025

ACTS NEWS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Vol. 65



ZOOM IN ACTS

- ACTS 후원의 밤 개최
- 아신대학교 개교 51주년 기념예배
- 아신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 (Th.D) 과정 신설

신학포럼

- 제 18차 ACTS 신학포럼 개최

AIGS 소식

- ACTS치과 & 양호실 개소
- AIGS 문화의 밤
-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버스킹

신간소식

- 루터에게 배우는 주기도문
- ACTS신학저널 63집
- ACTS신학저널 64집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ACTS NEWS

2025년 Vol.65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인 정홍열

발행처 아신대학교 기획처(Tel. 031-770-7803)

주소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디자인 이은컴퍼니(Tel. 02-2231-6402)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신선한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메일 skyair@acts.ac.kr

홈페이지 www.acts.ac.kr

Content

- 03 총장 메시지
- 04 ZOOM IN ACTS
- 14 AIGS NEWS
- 18 한국어학당
- 21 신간 소식
- 22 ACTS 후원 소식
- 23 English Summary



총장 메시지

President's Message

☯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

올해도 변함없이 무더웠던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해마다 점점 더 우리의 기후는 더욱 열대화되어갈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태로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가 더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캄보디아나 베트남 심지어 필리핀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비단 기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한 교육의 환경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한 치 앞을 예견하기 힘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구절벽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대상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의 원리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도 이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학교로 살아남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많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소멸은 아주 당연한 주제가 되었고 여러 대학들도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에게 친밀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신학대학교들이 충격적으로 폐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학교이름을 거명하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 보면 그들이 지향했던 신학이 잘못되었던 것도 아니고 교수진이나 학생들의 수준이 낮았던 것도 아니고 연구업적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원인이 결국은 백여 년을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마저 처참하게 소멸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높은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학교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대교협으로부터 종교교육양성기관과 재정건전대학으로 인정받는 경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ACSI 국제교사자격증도 10년간 재인증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준비해 왔던 재단법인의 매각 건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교육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수많은 풍랑의 위협을 맞이하더라도 학교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신대 총장으로서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학교가 글자 그대로 지속가능한 학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액트의 모든 가족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학교가 꼭 있어야만 하는 학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짐을 같이 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신대학교 총장 정 홍 열



ZOOM IN ACTS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01

ACTS 후원의 밤 개최

‘아시아 교회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 키운다!’



지난 5월 20일(화) 본교는 ‘ACTS 후원의 밤’을 마련하여 학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후원하며 격려하는 후원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이장호 이사장, 정홍열 총장을 비롯하여 이재훈 이사(온누리교회 담임), 이건호 이사(순복음대구교회 담임) 등 아신대학교를 사랑하는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복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동문 이미나 교수와 이영찬 국제교육원 학생의 사회로 엘.피스투스(새은혜교회)의 열정적인 연주와 외국인 학생들(AIGS)과 테너 하만택 교수의 아름답고 영감있는 찬양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아신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섬겨주시는 서울 보스톤치과의원 김범진 원장의 간증과 외국인 학생의 간증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ACTS 후원의 밤 행사는 아신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겨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ACTS 후원의 밤을 통해 전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고광석, 김기환, 김표현, 김혜정, 노현정, 문성욱, 배경자, 손신, 송경아, 안효영, 오윤경, 유은애, 이건호, 이근수, 이명석, 이미경, 이미나, 이소윤, 이영찬, 이장호, 정성국, 정진희, 정홍열, 하태선, 홍혜강

교회 및 단체: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서울보스톤치과(김범진 원장), 성령이살아있는교회(안재홍 목사), 순복음대구교회, 쌤스151(이정훈 대표), 온누리교회, (주)예인, 예림가설산업(주)(조중현 대표),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김윤규 대표), 태경산업(주)(김동찬 장로)



제18차 ACTS 신학포럼 개최

고령화 시대의 교회 목회



본교 부설 ACTS 신학연구소 (소장 허주 박사)는 지난 5월 8일(목) 본교 대강당에서 제18차 ACTS 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신학포럼은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작금의 사회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와 함께 다양한 대안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손신 교수(아신대 사회복지 선교학)가 “초고령 축소사회: 한국교회의 목회”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손 교수는 성경이 말하는 노인 돌봄과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성경적 고찰을 통해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미국과 여러 유럽 교회들을 비롯해서 국내 예시적 교회와 기관의 노인 돌봄 사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작금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 속의 교회 목회와 사역의 대안적 의미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힘썼다.

이후 이미경 교수(아신대 교양학)의 논찬이 이어졌는데, 이 교수는 발표자의 논문이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계가 맞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신학과 선교 및 교회 공동체의 복지 사명인 ‘돌봄’이라는 시의 적절한 키워드로 대안 제시를 했다는 점에 학문적 가치와 실제적 의미를 제공하였다고 동의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신학과 목회 실천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기성 세대 및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고령화 성도(교회)’의 현장을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 정보와 자료에 기초하여 논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학술적 가치와 목회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포럼은 허주 소장(아신대 신약학)의 사회 가운데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와 강현길 학생(신학대학원 재학)의 패널 토론과 참가 학생들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허주 소장은 “이번 ACTS 신학포럼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및 21세기 목회선교적 버전으로서 ‘노인 돌봄’ 사역과 모델링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 돌봄 구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증인 공동체로서 오늘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적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 속한 아신대 인재들이 우리 시대 상황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 받는 복음의 재목들이 되길 기대해 본다.

ACTS 신학포럼은 아신대학교 신학연구소가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포럼으로 신학적 이슈와 해석은 물론 다양한 신학적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제19차 신학포럼은 오는 10월 양평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디지털 시 시대의 교회 목회”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03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KAICAM) 발전기금 기탁

2025년 5월 12일,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학교 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탁

지난 5월 12일(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KAICAM, 이하 카이컴) 학교 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ACTS 후원의 밤을 통해 진행하였고 정홍열 총장은 목회기획국장 고성조 목사와 사무국장 백은석 장로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정홍열 총장은 후원의 밤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해주시신 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5 양평곡곡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감동 선사

5월 매주 금요일 아침,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버스킹 공연 진행

본교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눔에 앞장 서고 있다. ‘2025 양평곡곡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 양평 인근의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찾아가 등교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음악과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연팀은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 학교에 맞는 곡을 선곡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는 동요와 밝고 경쾌한 곡을, 초등학교에서는 인기 가요를, 중학교에서는 감성적인 밴드와 힘이 되는 가사가 있는 음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본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우리 대학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학이 가진 자원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은 이번 2025 양평곡곡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중 일환인 ‘학교로 찾아가는 아침맛이 버스킹’을 통해 학교 현장에 문화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동시에, 아신대 형, 누나들의 버스킹을 통해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학교로 찾아가는 아신대 학생들의 아침맛이 버스킹’은 5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그 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국악잔치, 뮤지컬 공연, 다도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양평 관내 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다. 아신대학교의 따뜻한 선율은 앞으로도 지역 학교의 밝은 아침을 아름답게 수놓게 될 것이다.



권오섭 메디힐 회장 아신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7월 31일,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을 보유한 엘앤피코스메틱(주) 권오섭 회장이 7월 31일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아신대학교에 기탁했다. 권 회장이 2020년부터 꾸준히 아신대를 후원하고 있으며 발전기금 기탁액은 이번까지 총 7억 원에 달한다.

메디힐은 2024 올리브영 어워즈 패드 부문 1위, 아마존 패드 부문 3년 연속 1위, 1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이다. 또한 골프, 야구 등 한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메디힐 골프단은 이예원, 박현경, 배소현 등 유명 선수들의 우승을 통해 올해 상반기 K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구단이기도 하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올해 2월에 이어 다시 발전기금을 전해주시는 메디힐 권오섭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아신대 구성원 모두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내주시는 발전기금이 한창 더운 올여름에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와 같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한 일상 속 모든 순간에 만족과 힐링을 전달하는 메디힐 브랜드의 가치관처럼 아신대 학생들도 세상을 치유하는 인재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엘앤피코스메틱(주) 권오섭 회장

개교 51주년 기념예배 드려...

“온고이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 향해”



지난 5월 8일(목), 본교 강당에서 개교 5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직원, 재학생, 동문, 이사진 등 내외빈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학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정홍열 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장혁 이사(드림교회 담임목사)의 기도로 이어졌다. 특송으로는 AIGS(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 날 말씀은 이장호 이사장(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오신 지난 51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 진리에 기초한 선교적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근속패 수여식이 있었다. 30년 근속에는 채광석 직원, 20년 근속에는 류승희 직원, 10년 근속에는 이수인 교수가 각각 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자랑스런 ACTS 동문상’도 수여되었다. 수상자로는 김미연 동문(아세아 86,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김OO 동문(신학 87, ACSA 초대회장), 곽OO 동문(선교 99, ACSA 초대총무)이 선정되었으며, 총장이 직접 시상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주경훈 목사(오륜교회 담임)의 영상 축사와 김승준 목사(학부 총동문회장)의 현장 축사가 전해졌으며, 감사 예배는 이재훈 이사(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기념촬영 후 참석자들은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교기념을 축하하며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본교는 1974년 설립 이래,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다. 이번 51주년 기념 예배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양평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양평두물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양평지역 고등학생 대상 교육학 및
인공지능 강좌 개설...
원격·대면 수업 병행



본교가 양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양평두물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에 참여, 양평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두 개의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며 지역사회 교육 연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평지역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양일고등학교, 양서고등학교, 양평고등학교, 청운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과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학생들의 접근성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블렌디드 형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좌는 아신대학교 안중희 교수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시대와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학’ 수업이다. 안 교수는 “미래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교육학과 자기탐구를 통한 교직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수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만의 교육철학과 교육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에 대한 비전을 키우고, 미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교육적 소양을 펼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좌는 이미향 교수가 맡아 진행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재미있는 인공지능 앱 만들기’ 수업으로,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강의는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인 MIT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코딩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앱을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역량은 물론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앱과 연동하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평 두물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은 대학과 협력하여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 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미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양평 두물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교와 양평교육지원청의 이번 협력은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 진로 탐색과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좋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봄학기 신앙수련회 개최

웃음과 환호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

지난 2025년 3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2박 3일간 봄학기 신앙수련회를 진행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9)를 주제로, 채플실에서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이어졌다.



FAITH

마지막 폐회예배에서는 주제 말씀 그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예배 외에도 다양한 프로
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둘째 날 오후에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점검했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공동체 안의 즐거움과
화합을 더했다. 학생들은 웃음과 환호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수련회는 말씀과 찬양, 교제를 통해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교는 앞으로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아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Th.D.) 과정 신설

해외 및 원거리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신학박사(Th.D.) 과정을 신설



하이브리드 수업 진행

ACTS 대학원은 2025학년도 후기부터 해외 및
원거리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신학박사(Th.D.)
과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신설된 일반대학원 신학박사(Th.D.) 과정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직접 대면수업 또는 온라인수업 중 참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Th.M.) 및 M.A. 신학
과정도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선교대학원은 동영상과 줌을
통하여 온라인 100% 과정으로 선교학석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대학원과
다문화교육복지 대학원 등에서도 일정 과목을
E-강의실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ACTS 대학원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원 홈페이지
문의전화
031-770-7794-6

아세아학과 86학번 김미연 동문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현지 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단 선거에서 임기 2년(2025-2026)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CRPD위원회는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 감독과 권고 등을 맡는다.

김미연 위원장은 지난 2018년 UN 장애인 권리위원회(CRPD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돼 201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동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년간 역할을 하다가, 2023년부터 장애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이어 지난 3일, 전체 위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셈이다.

외교부는 김미연 위원장의 선출에 대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성안 기여와 그간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 및 국제 인권전문위원 역임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이번 위원장 선출은 아시아 장애여성으로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장애계의 환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KOREA)는 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은 김형식 전 위원(11~18년, 8년)에 이어, 김미연 위원까지 연이어 책임을 맡은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이번엔 위원장까지 보유한 국가가 된 만큼, 우리 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장애인의 인권뿐 아니라 각 당사국의 CRPD 이행 속도가 한 걸음 더 진전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협약을 비준한 지 17년째를 맞이했지만, ‘CRPD이행 로드맵’이 부재할 뿐 아니라 조항별 이행 수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김미연 위원장의 당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을 한 단계 높이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연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15억 명의 세계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191개국에 이르는 당사국들의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3일,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역시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당사국의 동 규약 이행 감독 및 권고를 담당한다.

서창록 교수는 우리나라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이후 동 위원회에 최초로 진출한 국내 인사로서, 2021년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 교수는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위원(2014-2020년), 한국 인권학회 회장(19-20년)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 국제 인권 전문가이며, 금번 위원장 선출은 동인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인권협약기구 위원은 전체 당사국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만, 위원장은 각 인권협약기구 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11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와 세계로!” 다락방 입체글자 설치

아신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랑스런 상징이 될 것

지난 4월9일(수), 본교 다락방에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와 세계로!” 입체글자가 설치되었다.

다락방은 양평캠퍼스가 시작되며 처음 건축된 강의동 맨 윗층의 (구)강당의 별칭으로 ACTS의 입학과 졸업, 예배가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응답받는 학생들의 기도처로 현재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학부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설치된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와 세계로!” 입체글자는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ACTS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음주의 사명을 잘 나타내는 구호로 아신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랑스런 상징이 될 것이다.



ACSI 현장실사 성공적으로 마쳐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

지난 4월 28일(월)부터 29일(화)까지 이틀간,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025학년도 현장실사는 Debbie MacCullough 박사(ACSI 본부), Hyun Joo Oh 박사, Joohee Son 박사, B.J. Kim 대표(ACSI 한국본부)가 실사단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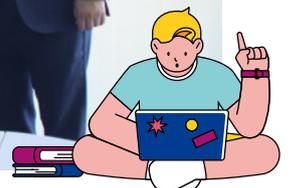
이번 실사는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 영성 훈련, 학생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ACSI의 평가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ACSI 실사단은 학교 관계자들과의 면담, 동문 면담, 수업 참관,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아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 철학과 실천을 면밀히 평가했다.



본교 실사 연구위원인 전병철 교수는 “이번 실사를 통해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방향성과 운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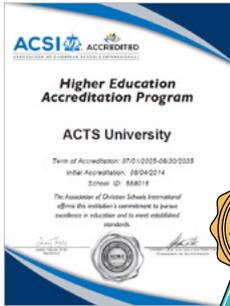
ACSI는 전 세계 수천 개의 기독교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실사는 본교의 교육 품질과 신앙 중심 교육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본교는 향후 ACSI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신대학교, ACSI HEAP(국제기독교사 고등교육기관) 재인증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취업 기회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아신대학교(ACTS University)가 국제기독교학교연맹(ACSI)로부터 (기독교)학교 교사훈련과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HEAP)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본교는 ACSI 미국본부로부터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심도있는 현장실사 및 평가를 받았다.

우리대학은 2014년부터 ACSI HEAP(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Program) 인증을 받았고 금번 인증은 향후 10년간 인정된다.

2025 ACSI HEAP 인증을 통해 아신대학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시스템과 교과 과정을 갖추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취업 기회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도서관, 영국 옥스퍼드 OTRL 국제 컨퍼런스 초청 참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 신학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



본교 도서관(박영진 사서)은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위클리프 홀(Wycliffe Hall)에서 열린 2025 OTRL(Oxford Theology Resources Link) 국제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신학도서관 간 국제적 협력과 신학 자료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 신학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OTRL은 위클리프 홀 도서관 사서 하니 라일리(Hannie Riley) 박사가 설립한 자선 단체로, 서구권에서 발생하는 신학 도서의 잉여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신학도서관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OTRL이 주최한 국제 회의로, 아신대학교는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KTLA)의 활동을 소개하는 발표를 맡았다.

박영진 사서는 컨퍼런스 첫날 ‘KTLA의 사례 발표’ 세션에서 우간다 쿠미대학교(Kumi University) 도서관 설립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KOHA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도서 분류 및 등록, 현지 도서관 직원 교육 등 실질적인 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현지 교육기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아신대학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영국 내 유서 깊은 신학 도서관들, 예컨대 모듈린 칼리지 고도서관, 옥스퍼드 유니언 도서관, 크라이스트 처치 도서관, 보들리안 웨스턴 도서관 등을 탐방하며 선진 도서관 운영 방식과 보존 기술을 직접 견학하였다.

한편, 이번 방문은 단순한 참가를 넘어 KTLA와 OTRL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아신대학교의 글로벌 신학 교육 지원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안튼 매너 라니어 도서관에서 한국 참가자들을 위한 예배와 파송 기도회가 열리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신학도서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문과 사역의 통합을 실천하는 도서관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신학 교육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아신대학교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본교 도서관, '2025 길 위의 인문학' 사업 9년 연속 선정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주배경가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본교 도서관(관장 김한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다.

아신대 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주배경가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문 프로그램 '나를 그리고, 너를 읽다'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부부가 자신의 삶과 문화를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선주민과의 공동 창작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4회차는 이주배경가정을, 6회차는 선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마지막 10회차에는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그림책을 전시하고 낭독하는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박영진 사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일회성 체험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인문학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신대 도서관은 2018년부터 해당 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8월 중 아신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양평군과의 관·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발판 마련

지난 6월27일(금), 정홍열 총장은 양평군수실에서 전진선 양평군수와 관·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교학처장 손신 교수, 기획처장 이수인 교수, 사회복지선교학과장 하태선 교수, 기독교미디어학과장 유지윤 교수, 국제교육원 원목 이명석 교수, 위헌숙 총무처장 등이 함께 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 교류를 비롯해 교육, 문화, 관광, 보건, 복지 분야에서의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협력 방안에 포함됐다.

아신대학교, '한빛 운동회'로 하나 되다

'한빛 운동회'는 아신대학교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소중한 시간

본교는 지난 5월1일(목), 학부학생, 대학원생, 한국어학당 학생이 함께한 체육대회 '한빛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첫 순서로 진행된 '골든벨' 퀴즈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아신대 관련 상식부터 일반 상식까지 다양한 문제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컵밥과 신선한 과일이 제공되어 체력을 충전할 수 있었다.

오후 2부 순서에서는 인기 게임 '오징어 게임'의 형식을 차용한 활동이 진행됐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긴장감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내며 모두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지는 컬링 게임에서는 팀워크가 빛을 발하며 학생 간 단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전략과 협동심을 발휘하며 게임에 몰입했다.



행사 중간 중간 이어진 응원전도 운동회의 흥을 더했다. 즐거운 체육 활동 외에도 학우 간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시간에는 푸짐한 바베큐 파티가 펼쳐졌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한 저녁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참석자들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한빛 운동회'는 아신대학교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광염교회 본교 도서관 환경 개선 리모델링 프로젝트 후원

서울광염교회가 본교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한 리모델링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서울광염교회가 본교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머물고 싶은 신학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후원은 2층 열람실 공간의 리뉴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2025년 5월 15일부터 2일간 진행된 공사에는 원목 열람 테이블과 의자 교체, 조명 개선, 공간 배치 재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본교 도서관 관계자는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광염교회는 그간 국내외 다양한 교육 및 선교 기관에 대한 후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 후원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과 헌신의 연장선으로 이뤄졌다.

본교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더 많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홍열 총장 연임

정홍열 총장을 아신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연임하기로 결의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2025년 5월 8일 제169회 이사회에서 정홍열 총장을 아신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연임되는 임기는 2025년 7월 20일부터 4년이다.



AIGS MISSION NEWS

상반기

2025 아신대학교
AIGS 키워드 뉴스



ACTS치과 & 양호실 개소

외국인 유학생들은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벼운 감기 외에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작은 병을 방치하여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결혼 후 입학한 여학생이 임신 된 사실을 모르고 학업을 따라가다가 아기를 유산한 사례도 있다. 학생들도 고통을 참다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때가 늦어 3차 종합병원에 가서야 치료가 가능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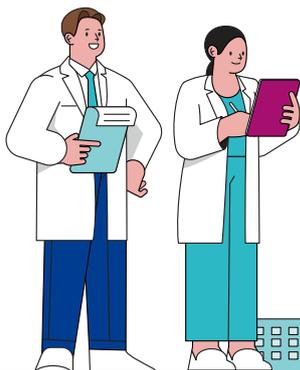
이러한 학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교수님들과 학교 이사님들이 지인 의사 선생님을 연결하였고, 의료진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진료하고 치료가 이뤄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또,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수원성교회 누가의료팀이 2024년 10월 첫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학생들의 정기적인 진료를 위해 치과 진료소를 학교 내에 개소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진 사비로 기계와 여러 필요 물품을 사고, 수원성교회에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치과 의료팀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 팀을 이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정기 방문 하고 있으며 때로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학생들을 진료하고 있다. 밤 10시가 돼서야 진료를 마치면 그제야 허리 한번 펴고 음료수로 허기를 달랜다.

이러한 노력에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기술이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화답하고 있다.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인다.



AIGS 문화의 밤 (Cultural Night 2025)

국제교육원 학생회는 매년 선배들이 진행하였던 Cultural Night를 올해도 진행하였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5월 22일에 개최하였다.

국제교육원 학생회는 Cultural Night에 대해 「단순한 전통 공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거룩한 축제」로서

- 1) 각 나라의 문화와 유산을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고
- 2) 다양성을 통해 조화와 사랑을 반영하며
- 3) 문화 간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연합을 추구할 때
- 4)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즐거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AIGS 문화의 밤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자리이며, 단순히 문화 교제를 넘어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버스킹

지난 2025년 봄학기에는 외국인학생과 한국 학생 예비팀이 함께 모여 버스킹을 진행하였다. 내·외국인 및 가족도 초대하여 故 한철하박사 추모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찬양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육원 학생회장인 Ashok Naik K(인도)는 버스킹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버스킹은 단순히 음악을 통해 학생들을 모으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성경께서 이끄시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심장박동에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AIGS에서 버스킹은 단순한 캠퍼스 공연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언어, 학문적 여정을 가진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 모이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만약 한 곡의 노래가 장벽을 허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 멜로디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AIGS의 버스킹 사역은 재능이나 퍼포먼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문화가 화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찬양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음의 짐은 내려지고, 학생들은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서로의 차이도, 삶의 스트레스도 잊은 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들, 그리고 국제 학생들은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이들”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됩니다.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선교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버스킹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기쁨의 화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소리이며, 부흥은 웅장한 강당이 아니라,
겸손히 드러지는 단순한 찬양 속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리를 넘어 하나 됨의 화음을 불어넣는 역사입니다.

버스킹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단지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함께 살아내도록 합니다.

모든 음과 모임 속에서 우리는 그 궁극적 목표, 하나님을 위한 연합,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당

아신대학교 어학당에 오시면
여러분의 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줄 확신합니다.



본교 한국어학당 1기 개강식 열려

지난 3월24일(월) 오전 10시, 본교 한국어학당에서 베트남 학생 26명을 맞이하는 개강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개강식은 특별히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사로 준비되었다.

정홍열 총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어로 인사 영상을 제공, 학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개강식은 교수와 직원들의 소개로 시작되어, 학생들은 학당의 교수진과 직원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총장님의 폐회기도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두가 조용히 기도에 집중하며 개강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도 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며, 이날의 기념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개강식은 한국어학당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학당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학생들의 한국어 능력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본교 한국어학당 2기 개강식 열려



한국어학당 2기 개강식이 지난 6월30일(월)
본교 다락방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베트남 유학생 22명이 새로 입학해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 개강식은 따뜻한 환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기 수료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을 더했다. 정홍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한국어학당 운영진은 학사 일정과 수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다짐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유학생들은 개강식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유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본교 다문화복지대학원, 베트남 유학생 환영회 진행



지난 4월28일(월), 본교 다문화복지대학원이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자의 개회사로 시작해 손신 교수의 환영사와 이한영 부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베트남 유학생 대표는 따뜻한 답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금영 동문회장은 유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말을 전하며 격려했다. 이어 하태선 교수의 식사 기도 후 베트남요리인 반미샌드위치와 쌀국수, 한국요리 잡채와 찰밥등 푸짐한 저녁식사와 과일이 제공되었다.

2부 순서는 김한글 원우의 축가로 시작되며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 2부 주요 순서로는 상호문화교육을 바탕으로 한 어울림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4월 생일을 맞은 유학생들을 위한 생일 축하 시간도 이어졌고, 중간고사 우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특별한 격려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희망 풍선 날리기 시간에는 저마다의 희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며 미래를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환영회는 전병철 교수의 마침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행사는 따뜻한 환대 속에 진행되며 유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베트남 유학생들 위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정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중 이다.

아신대학교 베트남 한국어학당,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문화체험

지난 7월10일(목),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1기생 27명, 2기생 22명 등 총 49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유물을 직접 관람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전시관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해설을 들으며 다양한 문화재를 관찰하고 한국의 역사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박물관 관람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불고기와 비빔밥 등 전통 한국음식을 체험했다. 처음 맛보는 음식에 흥미로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알게 되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베트남 어학당 학생들과 친목도모 축구경기 진행



지난 6월2일(월), 베트남 어학당 학생들과 학부 축구선교동아리 ‘코람데오’ 간의 친목도모 축구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문화 교류와 교제를 목적으로 열렸다.

경기는 오후에 국수생활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양 팀 모두 열정적인 플레이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베트남 학생들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인상 깊은 경기를 펼쳤다. 코람데오 동아리 학생들 역시 기량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본교대학원 M.div 임창호 전도사님의 인도로 마무리 기도가 이어졌다. 임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서 함께하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교류의 장을 마무리했고, 향후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다짐했다.

이번 친선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신앙과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로 남았다.

본교, 베트남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한국문화체험으로 뜻 깊은 시간 가져

지난 4월24일(목), 베트남의 한국어학당 소속 학생 27명이 잠실 롯데월드를 방문해 특별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중간고사를 마친 뒤 마련된 일정으로, 학생들은 롯데월드와 민속박물관을 찾아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롯데월드에서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하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겼다. 학생들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K-컬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후 방문한 민속박물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생활상과 전통문화를 관람했다. 전통 의상과 예절, 혼례 문화 등을 직접 보고 배우며 진지한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책으로만 보던 한국 문화를 직접 보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날 체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은 더욱 가까운 나라로 다가왔다.



한국어학당, K-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진행

본교 한국어학당은 지난 5월29일(목), K-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학당 재학생들이 참여해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참가 학생들은 야구의 규칙을 배우고, 응원 문화와 간식 문화 등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체험했다. 현장에서는 한국 팬들과 함께 응원 구호를 따라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즐겼다. 일부 학생들은 처음 야구장을 방문한 만큼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프로야구의 생동감 넘치는 경기 장면은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행사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로 기획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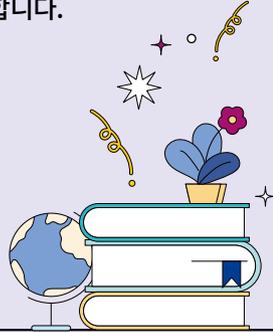
한국어학당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K-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문화 이해도와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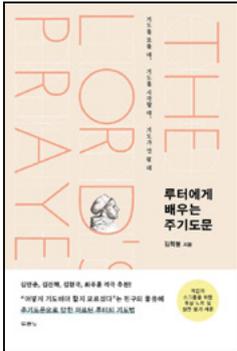


신간소식

좋은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달의 신간도서를 소개합니다.



ACTS 단행본



루터에게 배우는 주기도문
[기도를 모를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안될 때]

저자
김학봉



ACTS 출판부
해당 도서의 구입을 원하시면 아신대학교 출판부로 연락주세요.
press@acts.ac.kr 031-770-7747

ACTS 단행본



ACTS신학저널 63집

기고자
전희준, 유해석, 이명석, 오인수/반지윤/김연수

ACTS 단행본



ACTS신학저널 64집

기고자
류길선, 김한성, 배춘섭, 안승오, 최성훈, 배성훈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25년 1월 ~ 6월)



ACTS 발전기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220-01-0329-818
 (예금주 : 아신대학교)

생활관 건축 후원

고미선, 김정진, 김명순, 김재진, 김정호, 김진화, 김현아, 노의수, 박영진, 손하영, 윤성덕, 이명기, 장진영(박수지), 정연호, 정지은, 조상식, 조지현, 채수호, 하태선, 홍미란

ACTS 발전기금 후원

(사)한국여성복음봉사단, (주)에스피테크놀로지, (주)피도텍, GFM(Global Fraterna Mission), 가정교회 마을, 고정환, 고지은, 과천교회, 권오윤(지윤,지현), 권혜령, 금동철, 김규섭, 김덕영, 김미진, 김상현, 김선자, 김용환(김경민), 김은기, 김준구, 김준수, 김진화, 김창환, 나진근, 남현교회, 대구칠곡교회, 류승희, 문막운수(주), 박명기, 박영진, 서남지회, 손신, 송경렬, 송동윤, 수원성교회, 신미옥, 신성욱, 안경승, 안점식, 엘앤피코스메틱(주), 염천교회, 영세교회, 은누리교회, 위현숙, 유정애, 육상근, 이길범, 이명기, 이소윤, 이수인, 이순규, 이은옥, 이한교회, 이한영, 장옥란, 장정애, 전병철, 전수진, 정성국, 정영일, 정지은, 정홍열, 조암제일교회, 조현중, 조휘, 채광석, (유)청솔환경, 최현식, 평생교육원졸업생일동, 하정길, 하태선, 한상화, 향동성광침례교회, 허주, 홍지희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한국성서유니온, (사)한국여성복음봉사단, (재)비오스국제장학재단, (재)서편담, (재)한국복음선교회, (재)혜송원, (주)예람, (주)태동씨앤에스, BIK(Bangkok Institute of Theology), Ecclesia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GFM(Global Fraternal Mission), GMI은혜교회, IM선교회, Mission International, The Global Church(아름다운우리교회), 강신훈, 고효자, 과천교회, 구미상모교회, 금곡교회, 김명순, 김명신, 김보림, 김형준, 김홍재, 대한예장 서울노회여전도회연합회, 동부광성교회, 루디아선교회, 만방국제학교(합창단), 명업교회, 모새골공동체교회, 문호교회, 미선빌, 바실선교회(주안장로교회), 박소희, 베들레헴교회, 부안성결교회, 사단법인 누가, 사회복지법인 여수애양병원, 산본교회, 새로운교회,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울노회 100주년기념장학재단, 서울영동교회, 선두교회, 성지교회, 수영로교회, 수원성교회, 신성일, 신은정, 신일교회, 아가페교회, 안산은누리M센터, 에스겔선교회, 연희교회, 열방공동체교회, 염천교회, 영락교회 소망장학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 오산제일교회, 은누리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윤국일, 윤정선교회, 은천교회, 은평교회, 이경원, 이명석, 이영길, 이철현, 이한영, 이효숙, 임식근, 장도영, 전주현암교회, 정길숙, 정미화, 정영실, 정우철, 정은숙, 정효숙, 조우현, 주만교회, (주)생능, 천호제일감리교회, 평안플러스교회, 하나선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제자훈련원채플, 한진혁, 할렐루야교회

각국선교연구원/개척 후원

(주)아이니웨딩네트웍스, 갈릴리교회, 강성근, 김경빈, 김신아, 김은경, 김응상, 김정호, 대구복성교회, 대흥교회, 덕수교회(경기), 목동중앙교회, 박정순, 브리지(Bridge)선교회, 상도중앙교회, 서부교회, 세종중부교회,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우리네교회, 안디옥열방교회,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유기홍,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윤정환, 은좌교회, 은혜교회, 이점화, 이혜림, 임마누엘교회, 장예림, 장완익교수후원회, 전주연(강선민), 정영신, 조병휘, 천안반석교회, 충신교회, 한강중앙교회, 형남경, 형치과병원, 홍상락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주)바인코퍼레이션, (주)우보프로젝, 94학번 후원, ACTS상담대학원총동문회, 강지은, 권영현, 김경은, 김동욱, 김성미, 김윤자, 높은뜻광성교회, 미래를사는교회, 사랑빛:상담소&교육연구소(임신애), 사랑한의원(박수원), 상담대학원위원회, 신미옥, 안영실, 안해근, 영락교회, 실천장학회, 영락교회권사회, 윤만석, 이사야(신학과02학번), 이학근, 전예영, 정지웅,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홍선호(90학번 후원)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갑구, 강성경, 경기도교육청등록대안교육기관릭스쿨, 고지은, 김기천, 김동일, 김동현, 김병준, 김용환(김경민), 김정미, 김종일, 김종숙, 김지원, 노의수, 박명기, 박영길/자유와동행교회, 박영숙, 박우영, 박홍구, 백명진, 백승하, 손신, 손영복, 손하영, 송안현, 신미옥,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원성아(뇌과학센터), 위현숙, 유서원, 유용석, 육상근, 이광직, 이우형, 이정남, 이정순, 인유진, 장안나, 정미현, 정영일, 정홍열, 제자교회, 조형우, 조휘, 채광석, 채봉준,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동욱, 표영선, 허주, 홍성장, 황선미, 황순희

신학연구소

구미상모교회, 남양주충신교회, 이승련, 정홍열



Opening of ACTS Dental Clinic & Health Room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enroll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receive benefits, but due to the financial burden, many avoid visiting the hospital except for minor colds. As a result, some have neglected small illnesses until they became dangerous. In one case, a married female student, unaware that she was pregnant, continued her studies and sadly suffered a miscarriage. There have also been instances where students endured pain for too long, and by the time they sought help from the school, it was too late for treatment at a local clinic—only a tertiary general hospital could provide the necessary care.

Upon hearing such unfortunate stories, professors and school board members reached out to doctors they knew, who then visited the school to examine and treat students. This significantly reduced the occurrence of emergency situations. Additionally, because dental treatment is often expensiv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had to delay or forgo necessary care. Saddened by this, the Suwon Sung Church's "Luke Medical Team" established a dental on campus following their first visit in October 2024, ensuring regular dental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make this possible, the medical staff personally purchased equipment and various necessary items, while Suwon Sung Church provided essential dental supplies. The dental team, composed of private practice dentists, visits regularly on the second and fourth Wednesday of every month. Sometimes, they treat students in such a rush that they skip dinner entirely. Only after finishing around 10pm do they straighten their backs and take a moment to satisfy their hunger with a drink.

When students express their gratitude and apologies for the team's dedication, the doctors humbly reply [We are happy that our skills can support future ministers who will go out into the world to spread the Gospel.] Seeing those who work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putting God's prompting into action is a visible expression of the love of Jesus.

AIGS Cultural Night 2025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Student Council once again hosted the annual Cultural Night, an event carried on by seniors in previous years. This year, it was held on May 22 in celebration of Teacher's Day.

The Student Council described Cultural Night as a sacred festival that celebrates the beauty of diverse cultures given by God, rather than simply a showcase of traditional performances. They emphasized that the event embodies the following values:

- 1) Honoring each nation's culture and heritage as gifts from God
- 2) Reflecting harmony and love through diversity
- 3) Breaking down cultural barriers and pursuing true unity
- 4) Worshiping, fellowshiping, and rejoicing together as one body in Christ

AIGS Cultural Night is a foretaste of the worship of God's Kingdom here on earth—a gathering that goes beyond mere cultural exchange to live as a community that reveals Christ together.

Busking - Becoming One Through Music



During the spring semester of 2025, the international student and Korean student worship teams came together to hold a busking event. Both locals and foreigners, along with their families, were invited together on the lawn of the Han Cheol Ha Memorial Park to share a time of praise and fellowship. Ashok Naik K(India),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Student Council shared the meaning of the busking ministry as follows.

Busking began simply as a modest desire to bring students together through music. But now, it has grown into a movement led by the Holy Spirit—a channel that unites hearts, transcends cultures, and draws us closer to the heartbeat of God's mission.

At AIGS, busking is not just a campus performance. It is a sacred space where students from diverse nations, languages, and academies journey together as one under the name of Christ.

What if a single song could break down walls?

What is a single melody that could heal division?

The busking ministry at AIGS was not born out of talent or performance, but from a deep longing for hearts to be united in Christ, for cultures to be reconciled in love, and for God's mission to be vividly alive among us.

This ministry of praise bega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th one central vision:

To break down the walls of division and create a space where the love of Jesus is tangibly experienced.

When the sound of praise fills the air, burdens are lifted, and students are caught up in the joy of heaven. They forget their differences, their life stresses, and remember the One who has made us one.

Korea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lo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gathered here, are not just spectators. They clap their hands, sing together, and sometimes kneel to pray.

In those moments, we are no longer "strangers from another land," but one family worshipping the same Father.

In this unity, we discover the true purpose of mission: to bring people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and to fulfill His will.

Busking is not just music.

It is a bridge connecting cultures, a harmony of joy, and a prophetic sound proclaiming that the Kingdom of God has drawn near. It reminds us that revival does not begin in grand auditoriums, but in simple songs of praise offered in humility.

This is not merely a performance.

This is mission.

This is the church in motion.

This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breathing the harmony of unity across streets and beyond.

Through busking, God is awakening this generation not just to sing, but to boldly and publicly live out the Gospel.

In every note and every gathering, we take one more step toward that ultimate goal: unity for God and a life that expands His Kingdom.



함께하는 학교법인이사 목회자 소개

- **이장호 목사(이사장)** 높은뜻광성교회
- **최병락 목사(이사)** 강남중앙침례교회
- **박노훈 목사(이사)** 신촌성결교회
- **이건호 목사(이사)** 순복음대구교회
- **이재훈 목사(이사)** 은누리교회
- **황성은 목사(이사)** 창동영광교회

- **김경진 목사(이사)** 소망교회
- **김운성 목사(이사)** 영락교회
- **박장혁 목사(이사)** 드림교회
- **이인호 목사(이사)** 더사랑의교회
- **이기용 목사(이사)** 신길교회
- **최원준 목사(이사)** 안양제일교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대학교

- **모집 학과**
 - 신학과 -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사회복지선교학과
- **문의** 031-770-7701

아신대학교
입학안내



대학원

- **모집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선교대학원
 - 신학대학원 - 교육대학원
 - 상담대학원 -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 **문의** 031-770-7794~6

아신대학교 대학원
입학안내



2026학년도 외국인 신입학 특별 모집

종교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 및 영어과정)

- **문의** E. admission@acts.ac.kr
T. 031-770-7702

아신대학교
종교문화콘텐츠학과



- **장학금**
 - 1학기: 등록금의 100% 면제
 - 2학기: 등록금의 50% 면제
 - 3학기부터 성적에 따라 최대 100% 면제
- **한국어과정**
TOPIK 2급이상 (졸업까지 4급 이상)
- **영어과정**
TOEFL(iBT) 71, IELTS 5.5 이상